

학생생활관 급식비 사실상 '강제징수'

급식 의무규정 완화해야... 식권 활용이 대안

학생생활관의 의무급식 제도로 인해 식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식비를 지불해야하는 관행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학생생활관은 수칙 제18조에는 '관생은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여야 한다'와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하여야 하며 식사 시에는 항상 관계 직원에게 관생의 신분을 확인 받아야 한다'를 정해두고 있다. 아침배식은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저녁배식은 5시 30분부터 7시까지로 각각 1시간 30분씩 진행된다. 해당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식사를 할 수 없는 관생의 경우에도 일반 관생과 동일한 금액의 식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원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야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야간대의 한 관생은 "8,9교시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었는데 10,11교시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식사를 포기하거나 8,9교시 과목을 포기해야 했다."며, "9교시와 10교시 사이의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 8,9교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권리인 과목 선택권을 침해당한 기분"이라고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생활관측은 관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운영을 들어 반박했다. 아직 어린 관생들이 옹돈 마련을 위해 충동적으로 급식을 포기하고 나서 건강을 해치는 일

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의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 급식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인해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관에서 식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문화적·종교적 사유로 인해 식사가 불가능한 관생과 실습·학과행사 등의 공적사유로 인해 일주일 이상 결식하게 되는 관생이다.

해당 학생들은 생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식비 환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식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사유 중 첫 번째 항목인 '유학성 중 문화적·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식포기'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국인 관생이 적지 않다. 그

러나 생활관 측에서는 전례가 없어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일 뿐, 내국인 관생 역시 임의의 절차를 거쳐 환불이 가능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간대에 재학중인 관생이나 학원·직장으로 인해 식사가 불가능한 관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의 사정일 뿐,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며 퇴사해야 한다"며, "식사시간을 맞추지 않아 퇴사한 관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대에서는 식권 매식방법으로 급식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학생식당 매식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음악학과 금품요구 의혹 진상조사 착수

학교진상위에서... 티켓강매도 포함

음악학과에서 불거진 의혹들과 관련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교수지원과는 지난 6일과 7일 제주지역 방송사에서 '음악학과에서 시험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학생들에게 음악행사 입장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실제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수지원과는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에서 진상규명에 참여할 교수를 추천받은 후 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

위원회가 꾸려지면 조사 대상과 범위,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지원과 관계자는 "당초 지난 13일까지 진상조사위에 참여할 교수를 추천받아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다소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고 전제,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전적으로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가 확정되면 불공평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보도 이후에 이뤄진 음악학과 자체 조사에서는 금품

요구등의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대식(음악학과) 학과장은 "지역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사실 무근이다"면서 "현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본부가 조사를 벌일 계획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경남 총학생회장은 "취재기자들이 음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재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며 "일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만약 재학생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계절수업조사 형식적 운영 그쳐

조사 하루 전날 공지... 대부분 학생 몰라

계절수업 희망 교과목 수요조사가 홍보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학사관리과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계절수업 개설희망 교과목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계절수업 교과목 개설시 반영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라는 취지로 진행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요조사에 대한 공지가 하루 전인 6일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시돼 홍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조사기간 또한 겨우 4일에 그쳐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공지가 늦게 올라온 이유는 서버 상에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게 공지가 된 것"이며, 수요조사 기간이 4일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는 "재작년과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지만 수요조사 기간이 길어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준혁(정치외교학과 1)학생은 "계절수업 또한 우리가 수업료를 내면서 참여하는데 수요조사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수요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선정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소장 임상빈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환경부 영산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제5호'로 지난 2일 지정됐다. 센터는 지난 2006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위탁검사) 제56호로 지정된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의 AQC(측정분석능력평가)를 통과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식품분야에서 먹는 물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검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도 환경자연연구원과 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담당하던 수질검사를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게 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QC(Analytic Quality Control)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지의 시료를 받아 분석한 뒤, 분석의 데이터 수준이 높음을 인정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까다로운 평가이다. 센터는 이번 AQC 통과를 통해

측정과 분석의 기술적 능력을 입증 받았다.

센터는 6명의 전문 인력과 함께, 대장균 등을 분석하는 미생물 검사실과 벤젠 등의 유기 오염 물질을 분석하는 유기물 분석실, 중금속을 분석하는 무기물 분석실 등 다양한 연구실을 설치해 분석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로써 보다 정확한 수질 검사의 환경을 갖추게 된 센터는 수돗물(57항목), 샘물(47항목), 제수수(51항목), 먹는 물 공동시설(47항목), 지하수(46항목)를 모두 분석하게 된다.

먹는 물 수질검사부팀장은 "센터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적인 측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 내에 전문 인재를 기르고, 인력을 수용하여 고용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비상을 위한 준비

지난 10일 아라캄페스 야외음악당에서 패러글라이딩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실전에 앞서 연습 중에 있다.

박종건 기자

제7대 고충석 총장 이임식

29일 아라캄페스

제7대 고충석 총장이 오는 29일 이임식을 치르고 4년 동안 수행해온 총장직에서 물러난다. 인터뷰 4면

이임식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아라캄페스에서 치를 예정이다.

고충석 총장은 지난 2005년 5월 1일 취임한 이후 4년 동안 대학 발전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고 총장은 행정학과 평교수로 돌아가게 되며 1년간 서울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방행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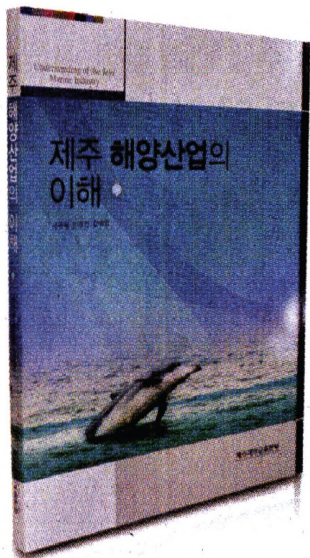
김현숙(사회 1)

강보배(정치외교 1)

수습기자로 임명함

이상 4월 15일자

2009 신간 모음



제주 해양산업의 이해

오늘날 세계는 약 6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2050년에는 약 92억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의 부족, 생수부족, 에너지자원, 광물자원의 부족, 생활환경의 오염, 대기의 온난화, 해안 상승 등 인류의 생활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곧 해양은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자원의 보고 특히 식량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서두옥 / 이창현 / 김병업 | 값 13,000원

제주현대문학사

아무리 사적 서술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적 전제없이 서술된 문학사는 제대로 서술된 문학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학사는 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방법적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제주현대문학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누구에 의해 쓰여진 문학사는 객관적일 수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최소한 아직까지 그런 문학사는 쓰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책의 단점을 변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김병목 저 | 정가 15,000원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동사문법

동사는 문장의 '핵' (核: core)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갖가지 문장 구조·태·시간·관계·화자의 심적 태도 따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반드시 형태·기능·의미의 상호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삼자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문법을 논할 수 없다. 이 책은 필자의 '실용영어문법해설' 1권(2006 중보판)에서 동사, 조동사, 시제, 수동태, 그리고 2권(2001)에서 부정사절과 동명사절 등 모두 여섯 장을 근간으로 하여 대학에서 영문법을 전공과목의 하나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크게 확충·설명하고 필요한 각주를 상세히 달았다.

고경현 | 정가 20,000원

한국어 어휘형성론

사람은 말과 글로써 사상(思想), 감성(感性)의 세계를 펼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럴 적에 사상의 생각과 정신이 반영된다. 또한 언어는 시대 변천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생성소멸(生成消滅)한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에 따라 언어(語)를 얼마든지 만들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늘 대하는 말, 특히 어휘는 언어(語)에 내재(內在)한 수많은 언어재(言語材)의 구성요소(構成要素)에 따라 어떤 일련의 원리나 규칙에 근거를 두어 말이 만들어진다.

최규일 지음 | 정가 30,000원



2008학년도 연찬회 ‘자성과 비판’ 자리

대학구성원 한자리 모여 ‘대학발전 이뤄내자’ 한목소리

‘대학 발전을 위한 2008학년도 연찬회’가 지난 9일 라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고충석 총장의 재임기간 중 성과와 과제 정리를 중심으로 대학 주요 현안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충석 총장은 “교직원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며 자리를 함께한 교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학과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방향성이 공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본부의 각 처·국·단장과 대학원장, 국제교류센터소장, 직업능력개발원장, 경영사업단장 등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과 지난 4년간의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본부의 각 처들은 대학 경영 패러다임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

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실적들에 대해 보고했다.

또 홍보협력팀과 정보통신원의 현안발표도 이어졌다. 홍보협력팀에서는 제주대학교 UI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안을 소개했다.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 영문 표기가 Cheju에서 Jeju로 바뀐 점, 도메인 주소의 변경(www.jejunu.ac.kr), 그리고 심블마크와 마스코트, 교기 등 상징물의 변경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원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과제에 대해 소개하며 시스템 구축에 학내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연찬회가 끝난 후 사범대학 최규일(국어교육과) 교수는 “연찬회 자료를 비롯해 대학원 명칭, 로고, 버스 등의 영문표기들이 거슬린다”며 “우리학교라도 먼저 이런 표현들을 자제해 보려 하는 것



지난 9일 오후 라마다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2008년도 연찬회에 많은 대학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에서 고충석 총장은 “아름다운 사람들과 지낸 시간이 영광이었고 좋은 인연이었다”며 “신축병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교대통합을 통해 대학의 평판도가 올라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후임총장에게 사명감과 열정을 부탁하며 총평을 마쳤다.

김현숙 수습기자

순환버스 야간운행 검토를

학교측,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

어두운 캠퍼스를 통학하는 야간대 학생들에게도 캠퍼스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캠퍼스 순환버스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6시 30분에 야간수업을 시작하는 야간대 학생들은 순환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가 차량이 있는 학생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차가 없는 학생들은 어둡고 추운 캠퍼스를 짙게 걸어야만 한다. 그나마 걸을 수 있다면 상황이 나은 편이다. 한송이(야간 관광경영 1) 학생은 “야간대학은 쉬는 시간이 5분인데, 늦으면 지각처리가 되므로 뛰어야 한다”며 “교양강의동에서 경상대까지 뛰어 가면서 늘 순환버스를 타고 싶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야간대학 학생들의 귀가시간은

늦은 경우 10시를 넘는다. 이런 늦은 시간의 제주대 캠퍼스는 낮보다 훨씬 춥고 어둡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에 의지해 정문까지 걸어가기가 무서워, 단과대학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야간대학 학생 중에는 순환버스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주지용(야간경영 1) 학생은 “낮에 순환버스가 다니는 줄 몰랐다”며 “주간처럼 자주 다니는 것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에 맞춰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캠퍼스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총무과는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취지가 교내의 교통이 혼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주간에 비해 야간은 주차장이 많이 비고, 도로의 교통도 덜 혼잡하므로 야간에 순환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등록금이 동결되고 물가도 많이 상승해, 순환버스를 주야로 운행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총무과의 입장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낮 12시 까지만 운행되던 순환버스가 지금 오후 4시 20분까지 연장 운영됐듯 순환버스 운행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학생들이 야간 순환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야간에 운행을 바라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실행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작년 야간대학 학생회는 ‘야간 대학생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별로 설문지를 돌려 500여명 가량의 학생 의견을 조사해 학교 측에 이를 건의했으나 사업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고용희 수습기자

건강증진센터, 금연 클리닉 운영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두두 의학과 교수)는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연클리닉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학생은 물론 교원, 직원 등 제주대 구성원 모두이며 신청순 40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흡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건강을 지켰으면 한다”며 “금연을 혼자 시도하는 것보다 클리닉 참여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클리닉에서는 교육과 함께 약물치료 및 금연보조제 처방 등이 이뤄지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올해 시행되는 금연 클리닉은 처음 금연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험기간을 피해 진행된다. 또한 지원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러 올 때마다 교육과 검사를 실시해 첫 방문날 3~4시간씩 소요되던 비효율적 시간을 줄였다.

금연 클리닉 신청을 위해 센터를

찾은 조성진(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씨는 “작년부터 참여하고 싶었으나 신청 시기를 놓쳐 올해 다시 왔다”며 “보건소에서 하는 비슷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었는데 거리가 멀어 찾아가기도 힘들고 시간도 안 맞는 등 참여가 힘들어 대학내의 기관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또 센터에 바라는 점으로 “재흡연방지를 위해 분기별 체크 등으로 금연 성공자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수습기자

『제주의 농기구』 박물관 발간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다섯번째 소장 유물 도록인 『제주의 농기구』를 출간했다.

이번 도록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농기구만을 골라내어 정리했다.

도록에서는 화산화토로 이뤄진 제주도의 특수한 자연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제주의 농기구들을 소개한다. 본도와는 다른 농사기법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농구에 대한 사진과 설명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도양희 전자공학전공 교수) 주최의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0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이제껏 부서업무소개로만 진행이 되던 신임교원오리엔테이션은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했다.

이번 2009학년도에는 외국인 교수를 포함, 총19명의 교원이 신규

임용됐으며 학회참석 교수 4명을 제외한 15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교내 주요부서기관 업무안내, 교수법워크숍(교수이미지메이킹, 마이크로티칭), 대학 강의 스킬과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선될 사항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정화 수습기자

세계교육기행 참가자 모집

Global challenge 프로젝트 추진사업 중 하나인 ‘데마벨 세계교육기행’에 참여할 팀을 오는 4월 27일~5월1일 동안 학생복지과에서 모집한다. 이 탐방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형 제주대인을 양성하기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과는 “이 탐방은 조금씩 맛만 보는 일반 여행과는 다르게 주제를 정해 팀 구성원끼리 경비, 티켓, 이동수단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세하게 계획을 짜고 탐방을 하는것이다.”라며 “좁고 한정된 여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탐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 기회이다.”라고 했다.

지원서 및 각종서류는 제주대 홈페이지(www.jejunu.ac.kr)의 제주대소식을 참조하거나 학생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연 수습기자

외국인 대일 킹 교수 첫 임용

제주대 첫 외국인 전임교원이 지난 1일 채용됐다. 미국 퍼듀대 생리학과 출신의 대일 킹(수의학과)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킹교수는 수의과대학(학장 신대균

교수)에서 영어로 수의생리학을 강의할 예정이다.

킹 박사의 전임교원 임용에는 풍부한 국제경험과 제주대 미개척분야의 연구경력이 주효했다.

신대균 수의과대학장은 “킹 박사의 임용으로 학생들이 외국인과 친숙하게 전공을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의 선도적 임용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학생들과 킹 교수가 얼마나 적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학생회 행사

대의원회

행사명 : 대의원회 총회
일시 : 4월 15일 5시
장소 : 법정대 강당

공과대학

행사명 : 체육대회
일시 : 5월 11일, 12일
장소 : 대운동장

경상대

행사명 : 회계학과 일일호프
일시 : 5월 1일 오후 6시~새벽 2시
장소 : 도토리

인문대학

행사명 : 체육대회
일시 : 5월 6일~ 7일 9시~
장소 : 대운동장

행사명 : 체육대회
일시 : 5월 18일, 19일
장소 : 제주대학교

학생회 행사를 접수 받습니다.

제주대신문사에서는 각 학과와 단과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의 ‘학생회행사’란에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알릴 여러가지 내용들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제주대신문사 편집국 = 754-2279

제 29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5년을 맞이하여 제 29회 백록 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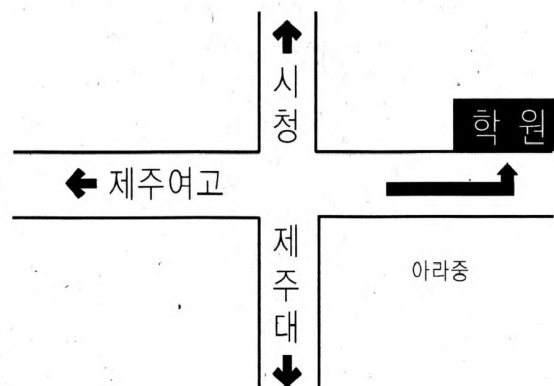
■ 다 음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09년 5월 18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출판센터 행정실(직업능력개발원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USB)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18호(2009년 6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당선작 (50만원), 가작 (30만원)
※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운 전 면 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내 자리는 신성불가침 지역, 절대 뺏길 수 없다”

중앙도서관, 자리독점 ‘불박이족’ 골치

무인 발권기 악용사례 늘어

중간고사 기간이 돌아오며 열람실 자리독점 현상이 또다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마련된 ‘무인 발권기’ 또한 학생들의 잘못된 사용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 자리독점 현상은 시험기간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된다. 열람실 ‘불박이족’들은 자신의 자리 이외의 좌석에 책들을 쌓아두고 있으며, 다른 학생의 경우는 여러 개의 학생증을 가져와 표를

끊어 자리를 맡아두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의 인식 부족에서 온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정선(생명공학 1)학생은 “무인 발권기로 표를 받고 열람실에 들어가도 다른 학생이 사용하고 있어 그 자리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학생회 측에서 자기가 배정받은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대진(행정학 2)학생은 “학생들이 무인발권기를 사용해야 한다

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무인발권기’ 사용자가 많지 않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총학생회는 도서관자치위원회를 꾸리며 무인발권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있다. 또 도서관 측에서도 ‘무인발권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졸업생과 일반사람들에게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열람증을 발부하고 있다.

오경남(건축공학전공 4)총학생회 회장은 “현재 도서관 자치운영

회가 3인 1조로 하루에 3번씩 도서관 방문 중이다”며 “일부 학생이 친구 학생증을 이용해 한꺼번에 자리배치표를 받는 문제를 현재 학생회가 정책국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도서관 강권의 계장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증을 찍어 배치표를 받는 문제는 볼 때마다 주의를 주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도서관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공간이므로 질서 있게 무인발권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열람실사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대학생 해외 파견 프로그램 다양

지난해만 해외에 492명 파견

우리대학의 대학생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41명이 세계교육기행을 다녀온 것을 비롯해 전공연수 파견 98명, 우수신입생연수에 46명이 참가했다. 이밖에 해외 문화체험에 57명, 해외워크캠프 12명, 해외봉사 13명, 해외취업에 10명이 참여하는 등 어느해보다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402명이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보다 90명 늘어났다.

특히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과 국제 환경변화 대처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 활발한 해외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자매대학에 교환학생 62명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화가 선행돼

야 하는데다 교환학생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류대상도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은 물론 대학 발전기금을 통해 미국 현지 대학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조지메이슨대학 교류수 학생은 대학 측에서 기성회계 및 기념미로기금을 통해 선발 학생 모두에게 개인당 100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우리대학은 대부분의 교류수 학생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학비 부담이 많은 영어권 대학에 자체 장학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도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해외워크캠프와 해외봉사 활동에도 모두 25명의 학생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파견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운동)’를 비롯하여, 우물보수·불우아동 교육 지원·학교환경개선·농촌봉사 등 현지실정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홈스테이 등 현지문화 체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 단기 연수를 지양하고 장기 연수와 연수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언어와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과 현장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만큼 다수의 학생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연수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복 대기자

학습법 클리닉 상담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방법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클리닉 상담실’이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도양희 전자공학전공 교수) 주최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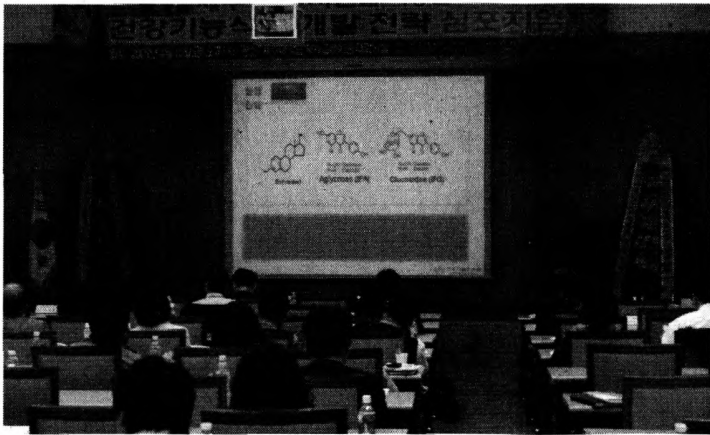
이 학습법 클리닉 상담실은 학생들의 시간 관리와 대학생활 설계를 중점적으로 상담해주며, 학생의 진로방향을 파악해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까지 마련해준다. 상담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총 2주 동안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직접 방문하거나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의 ‘학습 컨설팅’에 들어가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상담과정은 날짜를 정하고 자아개념, 직업적성, 성격, 학습스타일, 학습유형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일주일 동안의 관찰기간을 갖고 검사내용과 함께 분석하여 일주일 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

문정화 수습기자

제주 생물자원을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심포지엄

10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주관으로 ‘제주 생물자원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유봉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은 “웰빙시대가 열림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있다”며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 식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김연석 본부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동향 및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2009년 주요 트렌드 △(주)제주느낌의 정완식 대표가 도내 바이오기업인 나와 미역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추진과정 △권준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건강기능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정세영

경희대 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혜영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 절차 및 평가 △이영철 한국식품연구원 본부장이 로하스시대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지근익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건식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갑광

명 (주)라이브젠 부사장이 Seanol: Super Anti-Oxidant authorized by FDA as a NDI △최영진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가 식품기능성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 기술 △이종대 (주)큐젠바이오텍 대표가 담자균류 유래 베타-글루칸 개별인증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육상부 수영부 ‘금빛 레이스’ 질주

육상은 금메달 2개 등 총 10개 매달 획득

체육학부(학부장 김영표 교수)가 육상과 수영부문의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제주대의 위상을 드높였다.

육상팀은 지난 7일부터 경북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64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제25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대표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2, 은메달 6, 동메달 2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작년 체전에서 출발신호를 놓쳐 입상에 실패한 윤인숙(체육2) 학생은 이번 대회 58분33초의 기록으로 품가공 기술 △이종대 (주)큐젠바이오텍 대표가 담자균류 유래 베타-글루칸 개별인증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차지해 3개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오정순(체육2)학생이 100m와 200m에서 각각 12분57초, 26분26초로 2위를 차지했고, 김솔잎(체육1)학생은 400m허들에서 1시간7분33초로 2위, 임주리(체육2)학생은 3000m장애물에서 12시간27분17초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최윤정(체육2), 윤인숙(체육2), 조우리(체육2), 오정순(체육2) 학생이 48분79초로 400m계주에서 2위를, 최윤정(체육2), 윤인숙(체육1), 김솔잎(체육1), 우주희(체육1) 학생이 1600m계주에서 4시간3분21초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이아영(체육1)학생이 1m60cm로 높이뛰기에서 3위를, 홍미정(체육1)학생이 1500m를 4시간 54분32초로 3위를 차지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이에 앞서 수영팀도 지난달 31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제주대를 빛냈다.

플랫폼다이빙에서 전진수(체육3)학생이 1위로, 플랫폼싱크로에서는 전진수(체육3), 권일근(체육3)학생이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권일근(체육3)학생이 3M스프링다이빙에서, 전진수(체육3)학생과 권일근(체육3)학생이 3M스프링싱크로에서, 강상훈(체육4)학생이 배영 50m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또 배영 200m에서 강상훈(체육4)학생이 평영100m에서 소희영(체육2)학생이, 평영200m에서 송희영(체육2)학생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2009년도 전임교원 신규임용자 명단



김치완 철학과 전임강사
△전공-동양철학
△최종학위-부산대 철학박사



김봉현 회계학과 전임강사
△전공-재무/세무회계
△최종학위-제주대 경영학석사



이상철 과학교육과 조교수
△전공-응집물질 물리이론
△최종학위-제주대 이학박사



이동선 생명공학부 조교수
△전공-의생명공학
△최종학위-경북대 이학박사



조영열 생물산업학부 전임강사
△전공-채소시설 재배학
△최종학위-서울대 농학박사



김명숙 생물학과 조교수
△전공-해산식품 분류학
△최종학위-서울대 이학박사



조익현 의학과 조교수
△전공-인체해부학
△최종학위-건국대 수의학박사



정성철 의학과 전임강사
△전공-생리학
△최종학위-한림대 의학박사



서명덕 의학과 조교수
△전공-중앙내과학
△최종학위-강원대 의학석사



이대규 의학과 전임강사
△전공-안과학
△최종학위-전북대 의학석사



정선영 의학과 전임강사
△전공-영상의학
△최종학위-성균관대 의학석사



한은영 의학과 전임강사
△전공-재활의학
△최종학위-인하대 의학석사



이석재 의학과 부교수
△전공-흉부외과학
△최종학위-충남대 의학박사



송현주 의학과 기금 조교수
△전공-소화기내과
△최종학위-이화여대 의학박사



박중철 의학과 기금 전임강사
△전공-신경외과
△최종학위-서울대 의학석사



박준혁 의학과 기금 조교수
△전공-정신과학
△최종학위-서울대 의학석사



신성진 의학과 기금 전임강사
△전공-정형외과
△최종학위-전북대 의학석사



Dale E King 수의학과 조교수
△전공-수의생리학
△최종학위-퍼듀대 의학박사



전제웅 초등교육과 전임강사
△전공-쓰기교육
△최종학위-교원대 교육학박사

■ 인터뷰 / 이달말 퇴임하는 고충석 총장

“교대통합·로스쿨·국책사업 유치 큰 보람 느껴”

모욕 참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발전기금 모금활동 벌여
후임 총장 내부개혁 이뤄주길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이다. 나에게도 총장이라는 자리는 대학구성을 위해 일을 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나의 정체성인 제주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제7대 고충석 총장이 이달말 퇴임한다. 고 총장은 지난 2005년 취임 후 교육대학과의 통합, 로스쿨 유치, 제주대병원 이전 등의 굵직한 사업들을 척척 수행해 왔다. 지난해는 대학의 거대한 변화를 기념해 제3창학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본지는 오는 29일 이임식을 갖는 고충석 총장과와의 만남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이루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고충석 총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퇴임소감은

“지난 4년 동안 대학 총장직을 수행하며 늘 나에게 ‘정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학에 출근했다. 되돌아보면, 4년 간 많이 부족했지만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퇴임이라고 하니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웠는데, 이런 큰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

-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지난 4년은 대학의 정책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던 시기였다. 특히 대학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엄격했으며, 대학 간의 통합과 로스쿨 유치 등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도 많았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중점을 두고 수행한 사업으로는 교대와의 통합, 로스쿨 유치, 대학병원 이전, 국책사업 유치를 꼽을 수 있겠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솔직히 제주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을 고려한 정책에 의해 도전하게 됐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등을 다니며 유치를 심혈을 기울였다. 또 교육대학과의 통합도 10여년 간 끌어온 것이기에 대학 간의 통합으로 얻어지는 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뿐만 아

니라 큰 국책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 결과 기초과학연구원과 아열대원예사업연구 유치를 큰 성과로 얻었다.”

- 역대 총장 중 가장 많은 발전기금을 모았는데 노하우가 있나

“발전기금 유치도 처음 목표한 200억보다 100억 더 많은 300억을 유치했다.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 기부자를 설득할 논리 개발에 힘썼다. 제주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에 따라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국제언어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발전기금을 모금하려 다닐 때, 먼저 현재 제주대에 우리말을 배우러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재외제주인들을 만나면서 재외제주인 2·3세대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할아버지의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와서 손자들이 우리 문화와 언어를 배우러 할 때, 제주대가 그 역할을 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제주대의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여 점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제주에서 살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의 확실한 사용 목적을 제시했으며, 특히 직접 발로 뛰는 열과 성이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다. 모욕을 당해도 꼭 잡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대학을 위해 열심히 모금활동에

임했다.”

- 현재 해결하지 못한 대학 문제는
“떠나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육대학과의 통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연착륙이다. 처음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이다. 또 박물관을 짓지 못한 점, 의학전문대학원을 빨리 준공치 못한 점도 아쉽다. 중요한 것으로 대학이 외형적으로 큰 발전을 이룰 때, 이에 걸맞는 내부 개혁도 필요한데 이를 거의 손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안타깝다. 후임 총장이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

-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한 이야기인데, 총장이 직선제로 뽑히다 보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나뉘게 마련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인간적인 소통이다. 정책적인 소통은 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나, 인간적인 소통을 이루는데 큰 한계를 느낀 듯하다.”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는 잘 맺었나

“옛날보다는 많이 이뤄졌다고 본다. 그러나 유기적 관계를 잘 맺기 위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제주대의 발전이 제주도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이끌어 가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제주대 출신이다. 제주도민들을 비롯해 제주도지사, 제주를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제주대를 사랑하고 제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잘못된 사고로 제주대를 비하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우리 내부의 사고도 중요하다. 제주대가 정말 제주도를 위해 그 역할을 해왔는지 곁집어야 한다. 제주대가 지역사회

를 위해 씬크탱크로서의 역할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해왔는지, 동문들은 제주도를 위해 존경받는 일을 해왔는지 되돌아볼 때다. 이를 위해 제주대가 지역사회를 이끌 1차적인 인재양성 기관이 돼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활성화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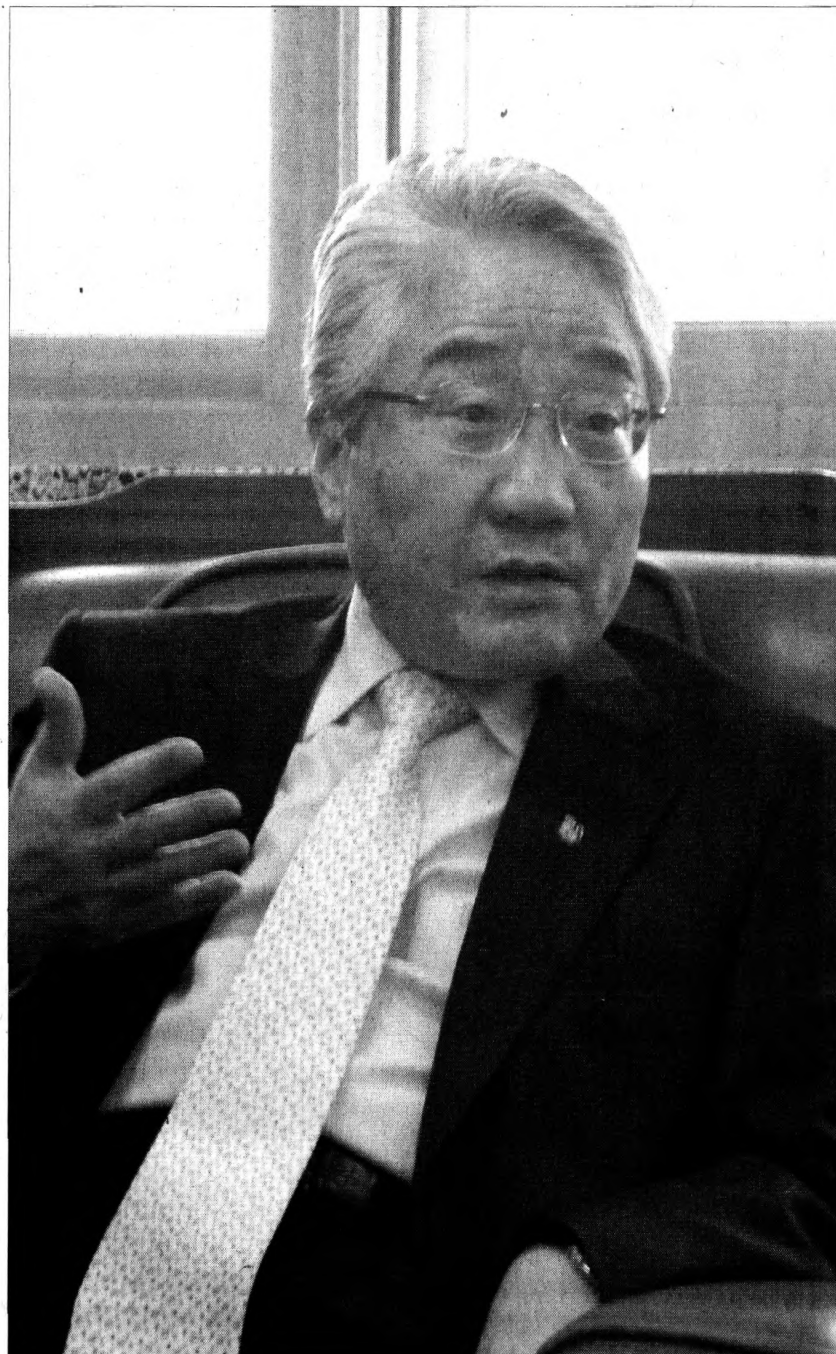
- 퇴임 후 계획은

“나는 행정학 교수다. 행정학은 소위 경제지학이라 불린다. 세상을 경영하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행정학자로서 총장직을 수행하며 제주대 경영에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경영에 있어서 사적인 생활을 거의 포기하면서 살았다. 옛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과의 제대로 된 식사도 해본적 없다. 항상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우선시 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4년 동안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 심신이 지친 면이 많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세대학교 혹은 서울의 연구기관에서 1년여 정도 연구를 하며 자기 충전을 할 생각이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어학공부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지친 마음과 건강도 돌볼 것이다.”

- 이상적인 대학상과 제주대가 지향해야 할 점은

“교육중심의 대학이 돼야 한다. 라틴어로 education이라는 말의 뜻은 ‘잠재적인 것들을 끄집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숨은 능력을 일깨우는 데 대학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우수학생 선발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임기기간 중 학생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국제교류센터, 직업능력개발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을 신설하면서 학생들의 질적 부분이 능력 향상을 꾀했다. 또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자식과 동생처럼 열심히 가르치도록 호소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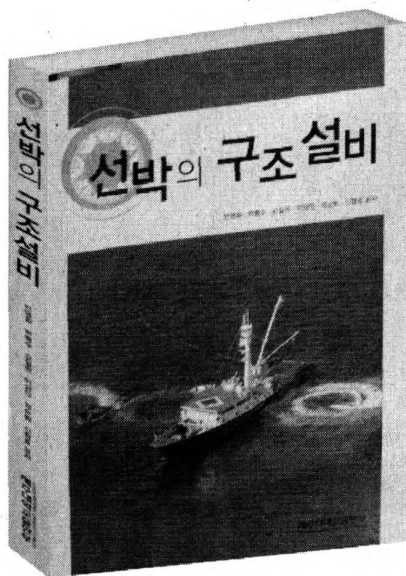
“시인 율만이가 말하기를 ‘청춘은 마음의 상태이지, 나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호기심을 잃으면 아무리 젊어도 노인이 되는 것이다. 제주대학생들은 자신의 뜨거운 젊음을 제주뿐만이 아닌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폭넓은 경험을 통해 제주를 이끌고 세상을 이끄는 인재가 돼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꿈이 있는 한 고통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며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제주대학교는 충분히 웅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 대학병원 등 전국 어느 대학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기관들을 확보했다. 우리 모두가 제주대학을 사랑하자. 제주대학의 발전을 소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응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학생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교수들은 제주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직원들은 대학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당당하게 제주대를 이끌어가야 한다.” 박종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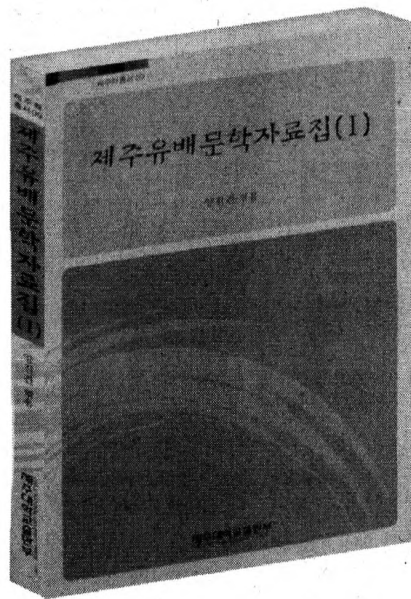
제주학 총서 모음

선박의 구조설비

인류문명의 발달지는 모두 큰 강이나 바다와 인접한 수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오래전부터 인간이 강이나 바다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기구가 곧 배이다. 따라서, 배는 인간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매체로서 원시시대 뽀나루에서부터 현대 최첨단 원자력선에 이르기까지 배의 발달과정이 인류역사의 발달과정과 맥을 같이한 만큼, 인간과 바다 그리고 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여 왔으며, 오늘날 전세계 무역량의 약 90%와 해상수간선이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안경환 · 박영수 · 김일권 · 이상민 · 정순범 · 신형호 공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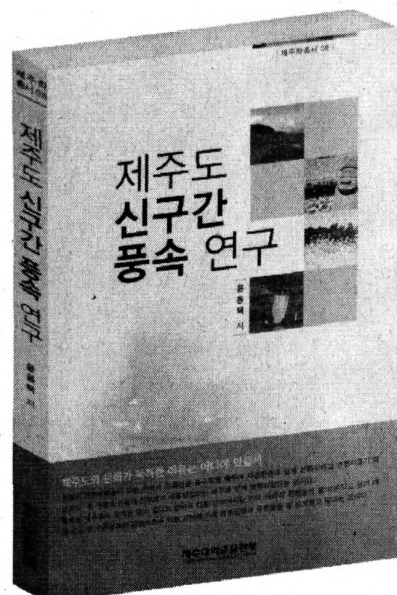
제주유배문학자료집(1)

필자가 “유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주유배문학연구를 경영의 업으로 삼아 돌아간 신진대원이다. 그러나 전생이 게으른 탓에 그 관심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소홀히 한채 방황해나갔던 것이 필자의 전공과 신진의 그것이 다른 때문이라고 변명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계면책임을 크다. 연전에 필자의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제주유배문학” (문학과지성사, 1999)이 출간되면서 과연 몇이나 읽을진가 우려했지만 기대와 달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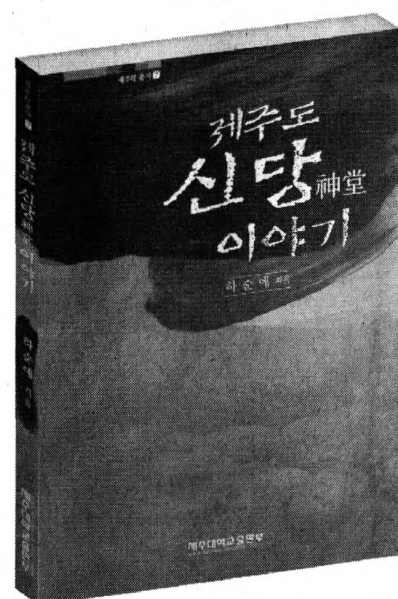
유한주역 | 15,000원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도의 문화가 독특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제주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들을 흡수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게 변화시키고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즉 문물의 근원은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제주에 맞게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성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문화들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문화의 성지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의 원형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한주 역 | 12,000원



제주도신당이야기

신당은 제주의 사람들이 염에서 염으로 전해온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제주인의 삶과 문화로서 광범히 녹아있는 장소이다. 각 신당마다 그 역사가 다름처럼, 신당에는 신전에 아주 두렵게 내려앉아 있다. 신당에 들어갈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책은 신당에 들어갈 시간의 무게를 헤치고 다니기 혹은 시간을 말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 신당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기는 했지만, 이 책은 신당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신당들은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소재에 다를 것이다. 이 책에서 신당이 씨줄이려면 낱줄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이다. 또 신당이 낱줄이라면 씨줄은 사람살이, 세상살이에 대한 성찰이다.

최수연 역 | 12,000원

제주대학교출판부
CHEJUNATIONAL UNIVERSITY PRESS

〈4·3 르포〉 해원상생곳 현장을 찾아서

“제주 4·3의 진정한 진실 규명은 곧 사회 정의”

옛 정뜨르비행장 4·3희생자 영혼 위무... 화해와 상생 정신 계승을 크게



지난 4일 옛 정뜨르 비행장에서 진행된 해원 상생의 곳 참가자들이 마음을 모아 저승길을 닦고 있다.

지난 4월 5일 옛 정뜨르 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 옆 공터에서 민예총 제주지회 주관으로 죽은 원혼들과 남은 유족들의 한풀이를 위한 해원 상생의 곳이 벌어졌다. ‘해원상생곳’은 지난 2002년부터 민예총 제주지회에서 진행해 온 대표적인 행사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4·3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매 해 피해가 심했던 장소를 방문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곳이 벌어진 정뜨르 비행장은 특정마을의 주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민간인, 군병회의·예비검속 대상자들이 총살되고 암매장된 곳이다. 정뜨르 비행장에 묻힌 유해들은 제주 4·3연구소의 발굴작업에 의해 근 60여년만에 세상의 빛을 만났다.

한편 곳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지하에 묻힌 유해들의 한(恨)은 세월만큼 무겁고 절실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속에 곳을 통해 호칭되고 위무되어진 그들의 넋은 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끝이 없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해원 상생은 비극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유해들의 용서와 허락으로 시작한다. 60년의 여두운 터널을 지나 해원 상생을 위한 유해들의 이해와 용서가 비로소 시작

된 자리. 국판은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국은 사물놀이 ‘마로’의 소리로 시작

악분위위원회인 ‘원’의 소리국이 준비됐다. 액을 막기 위한 소리국이다. 소리국이 이어지는 동안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흐느낌은 증언본풀이가 진행되는 동안 점차 자라났다.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 위원장의 증언본풀이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시작했다. 송 회장은 오라리 마을회관에서 군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낙태될 뻔 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본인의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은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당한 사람이 많다”며 총살 등으로 살해당한 시신이 대마도 등지까지 흘러간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송 회장은 “정뜨르 비행장에서 적지 않은 수의 유골들이 발굴돼 제주대 의대 병원에서 DNA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대마도까지 흘러간 경우도 있듯이 총살을 자행한 군경들이 어디서 참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한 시신을 유족들에게로 인도하고, 4·3 평화공원에 안치하기란 지난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1호인 ‘김윤수 회장’의 24명의 전수자들이 맡았다. 무당이 곳을 준비하는 동안 유족들은 저마다 신발이며 옷을 챙겨다 국판 앞에 벌려뒀다. 길고 험한 저승 길, 신이라

행장이 완전 살인장이 되곡” 주문처럼 풀어내는 증언본을 들으며 슬한 유족이 눈물을 흘렸다.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슬픔이 무당의 텅텅난 목소리로 불리는 이들을 통해 재차 떠올라서였다.

애월에서 정뜨르 비행장까지 찾아 온 김연옥 할머니는 애초 말을 아끼려 했다. 그러다가 심중의 무엇이 끓어올랐는지 두서너드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열하나의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만 했던 참사는 예순 해가 지나버린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했다.

김연옥 할머니의 친인척 세명이 정뜨르 비행장에서 해를 입었다. 뒤늦게나마 유해라도 발굴됐나 물으니, 전기선공사로 인해 뼈가 온통 뒤섞여 누가 누구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 그 유해들은 대학병원에 DNA검사를 위해 들어가 있지만, 그조차도 후손된 도리로 죄스럽고 마음 아프다고 토로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인정을 걸고 있는 이영석(연호봉보 1)학우는 “‘한국사의 재조명’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며 4·3 희생자의 유족들을 인터뷰하게 됐다”며 “처음에 4·3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유족들을 인터뷰 하고 나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후손인 스스로가 깊게 알지 못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제주도, 관련 소식을 찾다가 해원상생곳 관련 소식을 알게 돼 찾게 된 강은아·김효석(삼도동) 모자는 “4·3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모르는 이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함께 풀어나가야 할 역사”라고 역설했다.

해원 상생의 곳이 열려선 회를 거듭하고 있지만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는 한, 민예총의 해원 상생의 곳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찬식 제주4·3 연구소 소장은 “광주교육청에서 5·18 교과서를 보급한 것처럼 4·3 역시도 국가교과서에서 바르게 서술되고 교육·홍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비단 유족들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평화인권 의식과 제주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4·3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내 공동체적인 미래 성장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갈수록 대학생 참여 주는 4·3 행사

세대간 문화적 간극 갈수록 커져

올해 4·3 61주년을 맞아 도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하지만 갈수록 도내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도록 떨어지고 있다. 4·3에 대한 세대간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3의 세대계승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겠나란 불안의 시선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4·3행사의 시작을 알렸던 지난 2일 문예회관 광장에서 열린 전야제에서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빈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대부분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일부 유족, 4·3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채웠다. 10대, 20대 학생이 간간히 눈에 띄었지만 학교과제를 위한 참여가 대부분 이어서 자발적인 참여는 적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행사가 진행되며 대중가수 공연이 끝난 뒤 그나마 있던 인원도 졸졸이 빠져나가 전야제가 끝날 무렵 객석은 빈 채로 남아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꼽히고 지금도 많은 도민들의 기억에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4·3이 세대간 긴밀한 교류로 해마다 많은 이들의 참여속에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갈수록 세대간 간극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제주도내 세대간 문화적 향유 접점이 사라져 간극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 꼽히고 있다. 과거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방식의 4·3 행사에서 최근 들어 화해·상생을 위한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의 4·3행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세대간 문화향유 접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다. 4·3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고, 90년대 이후 급격한 문화지형 변화를 경험한 세대들은 4·3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영역과 차별성을 띄는 4·3 문화행사를 즐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떨어진다”며 “도내 세대간 문화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며, 앞으로 4·3을 계승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4·3 행사를 주최하는 인력에 20대가 사실상 없는 것도 대학생들의 4·3 행사 참여동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4·3 진영에 활발히 대학생들이 유입돼 지속발전 가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4·3 진영에서 활동하는 20대 인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 4.3연구소에 일부 20대가 활동하는 것 외에 올해 4·3 문화행사를 준비한 제주민예총이나 4·3 행사에 참여한 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20대는 거의 없다. 이는 4·3 행사에 대학생들의 문화적 취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세대간 문화적 간극을 더욱 넓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4·3진영 관계자는 “4·3 진상규명을 위한 일은 끝이 없는데 일을 진행할 젊은 인력이 없어 과연 4·3이 제대로 이어지고 계승될지 우려된다”라며 “교육현장에서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4·3을 제대로 알리는 등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현재 적정한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운 특별기자



지난 2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4·3전야제 행사 모습.

사진 제공=미디어제주

쓰러져간 넋의 고통과 희망 표현

“4·3 교육자료 보급해야”

됐다. 피해자들의 넋을 국판까지 인도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넋과 유족들이 서로 만나 신인동락의 곳이 열리고 있음을 연물장단으로 고하는 과정이었다. ‘마로’가 물러난 자리를, 춤패 ‘너울’이 채웠다. 너울은 입에 흰 종이를 문 채로 초벌구이 한 두개골 모형을 들고 등장했다. 흰 종이는 말 못할 슬픔을, 초벌구이 한 두개골 모형은 스러져간 넋들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였다. 하얀 소복과 창백한 화장으로는 비애감을 표현했고, 그들이 선보인 ‘상생의 춤’은 쓰러져간 넋의 고통과 희망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상생의 춤이 끝나고 제주 민예총의 음

도 좋은 신을 신고 가길 바라는 염원의 의미였다.

유족들이 신과 옷을 행기는 동안 무당은 저승길을 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양 끝단의 제상이 각각 하나씩의 문으로, 피해자의 넋들은 그 사이 열개의 문을 포함해 총 열 두개의 문을 지날 것이었다. 저승길이 어느 정도 모양을 잡자 유족들도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곳이 시작됐다.

무당은 무너지듯 절했다. 무당은 땀방아를 돌리면서도 힘차게 신발을 흔들고, 목이 터져라 본을 풀었다. “밥이라도 주면 먹든 술가락 담양 탕기국.”, “돈을봉에 해가 질때꼬장 총살시경, 비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sw5030@hanmail.net

◆ ‘오키나와 전과 오키나와 사람들’ 강연 - 아라가키 야스코 오키나와 국제대학 강사

“역사 왜곡은 희생자 낫 짓밟는 반역사적·반인륜적 도발”

오키나와도 아픈역사 간직... 제국주의에 희생된 ‘경계의 섬’



아라가키 야스코 강사가 지난 2일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 열린 강의를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사회학과 주최로 아라가키 야스코(오키나와 국제대학) 강사의 〈오키나와전(沖繩戰)과 오키나와(沖繩) 사람들〉 초청강의가 열렸다.

아라가키 강사를 초청한 조성운(사회학과) 교수는 “오키나와전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제주 4.3사건과 비슷하다”며 오키나와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덧붙여 “젊은 세대들은 4.3사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나라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공부하고 공감하며 4.3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강의의 의미를 밝혔다.

강의 전 한국어로 인사하며 학생들의 환대를 받은 아라가키 강사는 “제주 방문을 통해 ‘제주4.3위령제’에도 직접 참관할 예정”이라며 4.3사건에 대한 위로의 뜻을 밝혔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강의에서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아라가키 강사의 설명과 영상물을 통해 생생히 전해졌다.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졌다. 강의의 요약을 실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오키나와

류큐왕국(현 일본의 오키나와)은 조선,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던 독립 국가였다. 하지만 1609년 일본 사쓰마번(가고시마번)의 침략을 받았다.

이 때 오키나와는 무기가 없어 살기로 유명했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시만 해도 행정·정치적으로 류큐왕국 소속이었던 ‘아마미 오시마’는 이 때 류큐 소속에서 가고시마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다. 1879년에는 일본이 3000여명의 군사를 류큐왕국의 수리성에 배치하여, 류큐왕국을 일본의 현으로써 식민지화 하는 ‘류큐처분’이 일어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도 일본의 손에 무너지게 된 것이다.

오키나와 학교의 교장도 오키나와 사람이 맡을 수 없으며, 경찰서장, 행정 공무원들도 모두 일본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하게 됐다.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인들에게 ‘데도가 나쁘다’며 많은 차별을 받았다. 이틀테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 말을 쓰는 것, 더운 지방인 오키나와에서 옷을 가볍게 입는 것, 여자들이 자신을 더 예쁘게 하기 위해 손에 문신을 그리던 문화까지, 일본은 이 모든 것을 야만으로 치부하며 오키나와 사람들을 차별했다.

또한 식민지 국민으로서 황민화 정책에 순응해야만 했다. 황민화 정책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평생 써오던 오키나와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으며, 언제나 전환만을 생각하라고 교육 받았다.

오키나와전(沖繩戰) : 식민지 국민의 생명은 총알받이로 사라져도 괜찮은가.

오키나와전은 1944년 7월에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이판에서 일본군이 전멸하고 다음 지역은 오키나와라는 이야기가 돌아, 일본은 오키나와전에서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버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운다. 일본 본토에는 천황이 있기 때문에, 천황을 보호하기 위해 오키나와 사람들은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순간이었다. 미국이 오키나와 다음으로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는 어쩌면 제주도에서도 일어날 뻔한 사건이었다.

당시 오키나와의 인구는 50만명. 일본은 주민 중 어린이와 여자, 노인은 전쟁에 불필요하고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규슈로 보내려고 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전쟁이 곧 끝나며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규슈로 이끌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규슈로 가는 배인 ‘쓰시마마루’에 오르고, 비극은 시작됐다. 1944년 8월, 사람들을 태운 배가 미군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인해 침몰됐다(쓰시마마루 사건). 배가 폭파되며 어린이들은 “선생님 살려주세요”를 끊임없이 외쳤다. 불타는 배 위에서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내리는 수밖에 방도가 없었다.

그 후 1944년 10월10일 오키나와 중심지에 미국의 공습이 일어난다. 오키나와에서도 전쟁준비가 시작되고, 17~45세의 남자들은 군대로 소집돼 나갔다. 오키나와는 미군이 착륙하면서 전쟁터로 변했으며 주민들이 집단으로 자결했다. 주민

들의 자결은 미군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일본군의 명령인 ‘미군에게 포로가 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강의 후 질의 응답

학생들은 짧은 강의시간이 못내 아쉬운 듯, 오키나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졌다. “일본 본토와 다른 오키나와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라가키 강사는 “오키나와만의 독자적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지만, 생활적인 측면에서 일본화 돼버린 것이 많다”며 답변했다. “오키나와에도 제주도처럼 노동요 같은 것이 존재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요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처럼 오키나와에도 많이 존재한다”며 학생들에게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과 추가적인 학습을 주문했다.

강의를 들은 사회학과 3학년 진한중 학생은 “오키나와전은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아픈 기억을 공유하는 것 같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고 수강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라가키 강사는 강의를 마치며 “제주도에 풀이 특산품이듯, 오키나와에서는 사탕수수가 특산품이다”라며 학생들에게 사탕수수로 만든 과자를 한 개씩 선물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아라가키 야스코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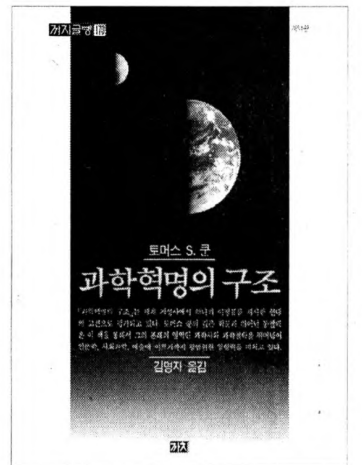
한권의 책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뛰어넘은 시대 사유의 틀

우리는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천동설이 주류를 이루던 당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가 행했던 사유의 토대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분명히 당대의 사유의 토대에 대한 대전환을 의미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의 업적은 이전 과학자들의 유산을 극대화시킨 생산물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사유의 틀과 그 확장 속에서 나온 획기적 이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치체도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을 때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과학에서도 혁명은 일어난다고 지적한 이가 바로 토마스 S. 쿤(Thomas S. Kuhn)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의 하나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이고 덧붙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가 사용했던 이론 혹은 개념이 단순히 과학적 지식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의 틀로 확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과학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의 맥락까지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책이기에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과학혁명의 구조는 한마디로 과학발달의 역사를 분석한 책입니다. 과학의 발달에 ‘패러다임이론’을 적용시켜 과학혁명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패러다임(Paradigm)은 그리스어로 ‘예제 혹은 예시’라는 뜻으로 쿤은 과학발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과학연구의 방법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예시’를 따르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개념을 적용시킵니다. 즉 과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 즉 정답이 있다고 믿으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인 ‘올바른 연구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S. 쿤

과정’ 또한 현재의 과학에 미리 정해져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학적 연구의방법론을 묶어서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쿤의 이론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계속 과학을 지배하다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쿤은 과학의 발달 혹은 혁명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상과학→이상 현상→위기→혁명→새로운 정상과학이라고 봅니다.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창의성보다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과 공통점을 주목한 계 쿤의 업적이고, 그러한 패러다임이 과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었던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그 사유의 폭을 확장시켜 줍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듯 인간이 만들어가는 학문의 역사 또한 불안정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야흐로 이불, 빛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계절에 자신의 사유를 점검하기에 과학혁명의 구조는 좋은 벗이 될 것입니다.)

장혜련 사학과 강사

◆ 문화광장 강연 요약- 유시민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책과 삶, 그리고 세계”

“책, 일상에서 만나는 기적”

책을 통해 얻는 다양한 즐거움 강조... 정치에 대한 소견도 언급

유시민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주대 문화광장에서 강연하기로 한 9일, 심상치 않은 연천보도가 났다. ‘유시민, 노 전 대통령 관련 시국강연 중단 선언’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였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국정운영에 한 몫을 담당한 정치인이었기에 기사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됐지만 혹시 문화광장 강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불안과 달리 강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유 전 장관은 강연에 앞서 보도를 의식한 듯 “강연을 중단키로 했지만 문화광장은 시국이나 정치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300여명의 제주대 학생들에게 책과 삶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와 더불어 정치에 대한 소견을 전했고, 제주대 학생들이 읽어야 할 도서를 추천하며 두 시간을 알차게 채웠다. 다음은 강연 요약.

책을 읽는 일은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이 책을 통해 더욱 알리고 하는 이유는 많이 아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

간이 변형하는 이유는 지성 때문이다. 인간만큼 둘러싼 환경의 존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존재가 없다.

우리는 책을 통해 우리네 삶이 덧없고 찰나임을 안다. 그래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삶을 가치있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 짧은 삶 속에서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지금 우리들은 큰 축복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책은 일상에서 만나는 기적이라 생각한다. 책에 담긴 지식을 제한없이 반복해서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책은 지식전달 기능 외에 인간이 영원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도 있다. 책을 쓰는 행위는 인간의 영원에 대한 갈망이다.

영성, 영원한 것의 갈망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다. 육체적으로 영생하지 못하지만 글과 기록을 통해 영생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책’을 쓰는 일이다. 후대에 영원히 사람들에게 읽힐 책을 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책과 도서관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품이 책과 도서관이라 생각한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지성을 축적한 공간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기적을 일으키는 보물창고다.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하면 유전자는 컴퓨터 운영시스템인 윈도우에 해당하고, 두뇌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책은 분리형 USB가 될 것이고, 도서관은 USB저장소다.

우리 두뇌는 지식을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책은 두뇌에서 담지 못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대뇌의 연장선상이다. 책은 우리 몸의 일부라 생각한다. 외화된 신체 일부다. 책을 많이 읽으면 행복하다. 책 만큼 저렴한 레크레이션 도구도 없다. 책 읽기가 지루하거나 부담스러워도 책을 우리 몸의 연장선으로 보면 다정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청중 주요질문 및 답변들

1. 국방부 불은서적 선정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학시절 불은서적을 많이 읽었다. 학교 다닐 때 대부분 양서는 불은서적이었다. 불은서적 안 읽으면 지성을 늘릴 수 없는 시대였다. 사회에 해악을 미치

는 가장 큰 원인은 사상과 지식을 탄압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을 지녔지만 토론을 통해 하나의 진리로 다가가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유를 막는 것은 사회적 범죄다. 왜곡된 정보나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로 막을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주장, 올바른 시각으로 대항하면 되는 것이다.

2. 전자미디어 발달로 책의 권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체환경으로 삶의 양식도 변하고 있다. 매체 환경 변화로 현대인이 텍스트로 구성된 책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책은 지배력은 약해질지 몰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책 자체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적용방식이 있을 것이다.

3. 정치인의 길을 걸었는데,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정치는 이상주의를 동력으로 삼아 표출하는 열정이다. 이상주의가 없으면 열정도 없다. 곧 정치도 없게 된다. 이상



주의를 빼면 권력투쟁만 남게 된다. 지금은 열정과 이상이 없어진 권력게임만 남은 정치다. 냉소와 무관심이 있는 정치는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 진보세력은 현재 가라앉은 형국이지만 민심의 물이 다시 차오른다면 곧 떠오를 것이라 본다.

* 유시민 전 장관이 추천한 도서

1. 『코스모스』(저자 칼 세이건)
2. 『이기적 유전자』(저자 리처드 도킨스)

3. 『공산당 선언』(저자 칼 마르크스)
4. 『가이아의 복수』(저자 제임스 러브록)
5. 『침묵의 봄』(저자 레이첼 카슨)
6. 『유한계급론』(저자 톨스타인 베블렌)
7. 『진보와 빈곤』(저자 헨리 조지)
8. 『시민의 불복종』(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9. 『사기열전』(저자 사마천)

이영운 특별기자

무론유설

초청강연에 대한 단상



송석준 수학과 교수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대학교에 근무하며,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 연구,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한편 나 자신이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며, 잘 가르치기 위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내가 연구한 결과들을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발표회’에서 초청강연을 하게 되었다. 초청강연자로 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나름

로 연구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초청강연 발표장에서는 계단형 세미나실을 거의 채울 만큼 많은 수학자들이 참석하였다. 강연 후에 젊은 분들이 나의 연구와 발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여 함께 토론도 하였다. 그런데 청취자들 대부분이 나보다 젊은.분들이나 것을 보고 나도 벌써 연장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수년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수학회에서, 처음 초청강연을 하였다. 정취한 선배 교수님들이 격려와 질문 및 연구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어서 참 고맙고 기뻐했다. 내가 존경하는 수학자들 앞에서 초청강연을 할 수 있게 된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수학 분야의 발표장에서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제주대학교와 나의 연구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했다. 그 중 몇 분의 교수들과는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나의

연구범위를 넓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초청강연은 각 대학의 수학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서울대, 포항공대 등의 국내 대학교와 미국 Utah 주립대, 독일 Bielefeld 대학교,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스페인 응용물리연구소 등에서 초청강연을 하였다. 올해 1월에, 나는 ASEM-DUO 재단의 지원으로 우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루앙(ROUEN) 대학교에 한 달 동안 연수를 갔다. 이 때, 수학연구소에서 1시간의 초청강연을 요청받았다. 한국 수학사의 개요와 나의 연구과제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아내도 발표장에 참석하였는데, 아내는 나의 발표시간동안 프랑스의 교수들이 잘 알아듣는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등에 관심을 갖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들었다고 하였다. 발표 후에 7명의 교수들과 약 2시간에 가까운 점심을 함께하면서, 역사가 깊은 루앙대 수학과와 연구과제들과 졸업생들의 진로를 들으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수학 연구의 우수한

결과들에 관심을 보여서 기뻐다.

초청강연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강연의 경우는 학회의 모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다. 지난 2005년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된 호남수학회에서, 나는 학술상을 수상하고, 이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을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시간동안 나의 연구 분야인 “퍼머넌트 함수”와 “선형보존자 문제”를 다루었다. 전주대학교 강당을 채워준 호남수학회 모든 참석 회원들과, 이 학회를 격려하고 자 참석한 대한수학회 회장단 등 많은 수학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것은, 나에게 학술상의 기쁨보다 연구자로서의 더 큰 행복감을 누리게 하였다.

앞으로도 나는 연구와 교육, 봉사의 삶을 지속하며, 나의 학문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학교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보탬이 되는 연구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의 작은 노력위에 수학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기도하며, 초청강연에 대한 나의 단상을 접는다.

사설

학교 내 교통정책 다시수집하라

도대체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가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 세상을 보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생명의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 서로 약속한 규칙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불법이며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위험이다.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우리의 대학, 제주대학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동차가 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 자동차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주위를 살펴보자. 학교 구성원의 90퍼센트 이상이 보행자인데 이들은 한쪽으로 내몰리고 극히 소수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위해 차량이 학교의 주인처럼 대로를 점유하고 있다. 학교 내 도로를 건너는 것이 시내 도로를 건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경성대나 공대2호관에서 질주하던 교문을 향해 내려오는 차량들,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을 보면 보행자들은 움찔하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곳이 우리 학교이다.

이렇게 자동차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 것은 학교의 철학 없는 천박한 교통정책의 결과이다. 학교는 자동차 통행을 우선시해야 하는 일반도로와는 다른 곳이다. 교내 교통정책은 가장 필수적인 차량이외에는 통행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 인명의 존중과 보행자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교통정책은 운전자의 편의를 앞세우다 보니 교내 강의실이나 건물 주위에 공간이 있는 곳마다 차량을 접근하게 하고 주차장을 두게 된 것이다.

또 학교 주위를 둘러보라. 여기 저기 불법 주차의 천국이다. 강의실 옆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건물 입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한 차량들,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전자의 목적지 최근 거리에 불법주차를 해놓는 차량들이 학교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는 학생회관, 법정대주위, 교직원 아파트 입구 테니스장 옆, 저녁 이후 시간에 도서관 주위에서 수없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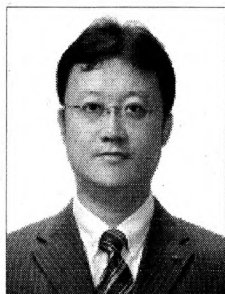
학교는 이제라도 소수의 차량 운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 내 이동권과 빈 공간을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교내로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을 통제하라. 이를 위해 통제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입구에서 사람이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교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 화물 수송, 교내로 차량이 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학교 입구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저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주차장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인조치가 일주일만 계속되면 불법주차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통행정에 서 사람들의 행동을 가장 빨리 변화게 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들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견인조치 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천년의 화두는 생명의 존중, 느리게 사는 삶으로의 회귀,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 등이다. 이런 것들을 지식인들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를 배우게 하여 세상에 나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당국, 교직원, 학생회 등은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학교 구성원 다수가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행동을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

‘잔디보호’ 팻말 무색



양재혁 수의학과 강사

햇살가투가 따사로운 요즘, 우리들의 아라별은 벚꽃의 만개로 그 분홍빛 화려함이 더해가고 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초록색 나무와 나무 사이에 깔려있는 잔디밭, 그 위의 자유롭고 평온한 푸르름은 진리를 향한 상아탑의 숨은 예메랄드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중 몇 학생회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잔디밭의 모습은 백미로 꼽을 수 있다.

넓게 생각해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웅장하다. 우리 캠퍼스에 국한하여 생각해 볼 때

자연은 나무와 잔디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휴식이 있을 것이다.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어 숨을 쉬는(息) 그 休息. 숨찬 강의를 없는 시간이면 잔디밭에 앉거나 누워 잠을 자며 자유를 만끽하는 기쁨은 해 본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혹자들은 학점을 A에서 Z까지 뺐다고들 한다. 그 Z가 바로 만화에서 잠을 잘 때 코를 고는 ZZZ.....이다.

갯살하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모여앉아 답소를 나누거나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아직 어리고 어린 잔디를 발로 찢고 있다. 분명 거기에 ‘4월말까지 잔디보호’를 위해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팻말이 박혀있다. 당연 5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잔디들이 면 역력을 획득 할 수 있기에 그랬으리라. 학교당국이 쓴 글이 아니라 마치 잔디가 쓴 글처럼 느껴진다. 이미 채 크지도 못한 연두빛 잔디들이 죽어있고 일부는 땅이 파지기도 했으며 먼지가 뿜나 날리고 있다. 조그만 참으면 더 좋은 것을, 잔디들이 겨울잠에서 깨어

나 새순을 열 수 있게, 그 순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잔디는 어느 정도 자라면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생명은 자그마한 충격에도 그 생명을 잃거나 형질이 망가지기 쉽고 결국 우리들의 잔디밭은 엉성한,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할 것이다. 한 순간의 편의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곱고 아름다운 잔디밭이 없어진다면 마음 아프지 아니한가?

학교당국이 잔디보호를 위해 그들을 통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제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율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성인이면서 지성인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고 어느 학자가 말한다. 4월 말까지만이라도 자체를 부탁드린다. 영어 플리즈(Please)는 불가능 할 것도 가능하게 되는 마법과 같은 단어이다. 지금부터는 그 마법의 단어가 필요한 때다. 죽은 잔디가 다시 살아나는 마법 그리고 제발이라는 마법이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론면에 게재하고, 독자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jeju.ac.kr, 홈페이지 http://www.cnpupress.com

돌하르방

‘학생 상대 금품 요구 의혹’ 호지부지 안된다

관례적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잘못된 대학 내 관습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 뜬 구름 잡듯 떠다니는 이야기들을 쉽게 말할 수도 없거니와,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어떠한 의미에서 암묵적인 동의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본다면 그 조직의 시각이 크게 반영돼 문제를 인식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같은 학계에서 몸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거론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음악학과 금품요구 문제가 의혹만 불거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대학에서 금품요구라는 어구자체가 나왔는데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대의 경우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더욱 크다. 제주 지성의 전당, 제주를 이끌어갈 당찬 인재양성할 기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터

져 나왔다는 것이 크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내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는 금품요구 문제를 한 쪽의 시각으로만 보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현재 명백한 사실이라 여기고 보도하고 있는 도내 언론사들의 경우도, 후에 진상이 규명으로 잘못됐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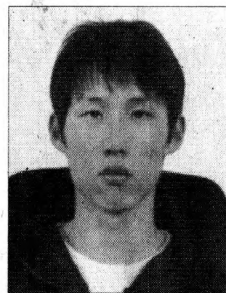
대학자체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팀을 꾸린다고 한다. 선발된 조사위원들은 대학의 명예와 본질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무고한 희생자가 나와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음악학의 학생과 교수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올바른 진상규명으로 하루빨리 음악학과가 치유되길 바란다.

박종건 편집장

독자기고

언론자유만이 권력 견제



최현식 철학 1

추진종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말이 많다. 정부의 외압이라는 추측이 압도적인 상태이나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허나, 작년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던 언론사나 단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검찰수사를 행하였던 전례를 봤을 때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정부의 권력에 대해 한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 삼부(三府)가 서로를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요지이나 실

제로는 이들이 서로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결과로 거리가 멀어질 것이 없는 ‘절대 권력’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절대 권력’은 자신들을 바로 잡아줄 언론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자 그들을 속박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최근에 불어온 언론 탄압 관련 문제들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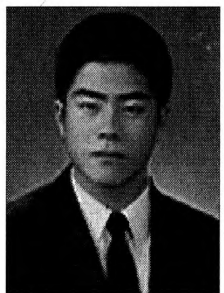
정치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보여도 우리 삶의 최근저에 있는 것이다. 독재 정치와 권력의 부패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불러온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런 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언론이 없으면 국민은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국민도 언론이 없으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다. 이 두가지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주위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어렵고, 멀면서도 가까운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작든 크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현재의 사회적 난제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기고

‘다단계 취업 사기’ 조심해야



김재현 정치외교 3

필자 또한 다단계 회사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권유를 받았고, 호기심에 찾아가 강연과 판매방식,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계기가 있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다단계 거래 방식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경제적 지식을 갖지 않고 단지 적은 자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해 도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단계에 종사했던 대학생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투자했던 자본과 시간과 비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주변인과 지인들까지와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을 자주 목격해 왔다.

우선적으로 다단계 상위에 대한 지식을 간단히 알아본다면 다단계 상업이란 흔히들 피라미드 판매라고도 하는데 보통 상위에

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 아닌 회사와 그 회사에 가입된 가입자, 즉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판매조직에 가입시켜 점차 하나의 본부와 여러명에 판매자를 늘리는 방법이다.

현재 다단계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이러한 다단계상업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이나 각종 공개 법률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계약체결 전의 고지를 하거나 계약서를 확실히 명시해 두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계약서를 철저히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타인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권유를 받게 될 때는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학생으로서 많은 사회 경험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업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험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상태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에 앞서 자신의 주변인과 지인을 잃고 자신의 신뢰조차 잃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 아마가사키 서상공회의소 문영석 고문

일본에선 남과북 모두 다 우리나라

‘애국애족’이 아닌 ‘애족애국’이 우선



- (뉴커머들과 관련하여) 이제 뉴커머 자녀들도 조선학교에 보내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겠는가?

“그게 많아지고 커지면 학교로 서도 무시 못 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민족교육이다.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민족교육이 우선이다.”

말했다시피 우리가 일본에서의 기본 과제는 민족성을 어떻게 계승시킬 것이고 말과 글과 역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일교포의 권리를 민족성에서 찾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화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침략자들은 일단 들어가면 민족성을 먼저 없앤다. 말과 글을 먼저 빼앗는다.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된다”

- 재일동포가 생각하는 남북 관계의 해결책을 말해 달라.

“민족을 지키고 더 힘쓰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서로 더 힘써야 한다. 일본에서는 남과 북 모두 다 자기 나라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 많아 경상도 영향도 많이 받았다. 어릴 적에 전라도 말도 조금 배웠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잘라서 잘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민족 교육 다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의 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기업을 하는 것도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보통 이북이나 남한에서는 애국애족이라며 국가가 민족을 앞선다. 그러나 여기서는 애족애국이라고 한다. 민족이 우선하는 것이다. 일본 교포는 민족을 우선시 한다. 그래서 애족애국이다. 남과 북이든 일본이든 국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민족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 민단과의 소통은?
“일단 서로 대화는 일본어로 한다. 요즘은 웬만해서는 서로 머

리 아픈 이야기는 잘 안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하려고 한다. 민단의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민단을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고민이라고... 거기에 내가 말하기를 가장 기본적인 힘은 민족성이라고 했다. 총련의 10명은 민단의 100명 보다 강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돈을 내도 그 금액을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총련이 더욱 많이 낸다. 아무래도 민단은 결속력이 좀 약하다. 민단의 젊은이와 총련의 젊은이는 좀 다르다. 민단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가우뚱 거리며 조건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겠냐고 물어보아도 역시 반응은 같다. 마찬가지로 조건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완전 동화되었다”

- 미사일 문제로 매우 민감한데 여기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애매한 문제가 된다. 일본은 매우 민감한데 총련이 피해보는 것은 없는가?

“일본이 북한을 미워하는 것은 국가의 방침이다. 북을 욕하는 것은 일본 정부 방침의 수형일 뿐이다. 남치도 많이 과장되게 보도한다. 그러면서 그 구실로 군비를 확장한다. 북을 겨냥하여 명분을 얻으면 자국민에 대한 여론도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을 나쁘게 만들어야만 그들에게 명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우리는 미사일 등에 대해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자료도 없다. 그저 우리는 북한이 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 이 인터뷰의 시기는 2월 말 일)

현재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옳은 시대이다. 전쟁은 힘 있는 나라가 이긴다. 솔직히 싸운다고 이길 수 있겠는가. 북한에게 미사일은 힘의 과시이고 북한은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호형 기자

◆ 조총련 아마가사키 서부지구 상임위원장 이수남씨

교포들의 민족성 지키기 위해

민족학교 지어

일본 취재 둘째 날 우리 취재단이 처음 만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사람은 다찌바나역에서 만난 서덕태(67, 지부고문)씨였다. 서씨는 아마가사키시의 고려반점이라는 한국 식당으로 우리 취재단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조총련 서부지구 상임위원장인 이수남(52)씨를 만났다. 그에게서 민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민족학교는 조총련에서 만든 학교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일반 교과목도 가르치는 민족성을 지키기 것을 우선시하는 학교이다.

민족학교는 뜻있는 교포 1세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려운 와중에도 재산을 모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학교 설립을 위해 일본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이다. 가장 많았을 때는 157개교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학생수도 줄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아 70여개 정도가 남아있다. 폐교된 건물은 조총련에서 매각한 후 학교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학교가 설립된 후에 북한에서 서적을 몇 번 보내주긴 했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았고,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지원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민족학교는 일본에서 한민족임을 잊지 않기 위해 설립한 학교이지만 단순한 학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운동회라 하면 이 운동회는 단순한 학교 운동회가 아니고 일본에서 한국인이 모이는 민족 공동체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일본의 시장이나 시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 또한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수익금이 나오는데 물론 그 돈들은 학교를 위해 쓴다”고 했다.

하나의 학교로만 보았을 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년에 필요한 예산은 1억2천만엔.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고 기부를 받아도 1년 부족분은 1700만엔 정도



라고 한다. 이 돈은 학부모끼리 바자회 등을 열거나 행사와 관련된 이벤트나 광고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위원장은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로 보충 1년에 700만엔 정도로 들어온다. 기부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부모금의 일부 등도 기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며 기부금은 그 금액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 문제보다도 민족정신이 약화됨이 더 큰 원인이다. 요즘 세대는 자기 생활에 더 무게를 두며 민족을 위해 기부하는 그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관계가 좋다고 말을 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우선 민족학교는 문부과학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된 국가 지원금이 나오지만 문부성과 입장 차이가 크다. 문부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일본 교과서를 일본 교사가 와서 가르쳐야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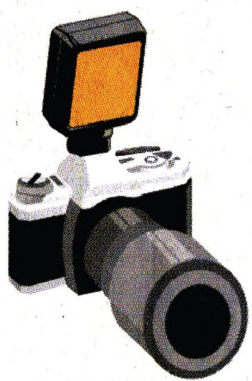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민족학교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총련 측에서 열심히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동포들의 삶에 대한 질문에는 한숨을 쉬며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차별도 많이 받는다 우선 동포는 전기 같은 국가의 기간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일반회사에 취직을 해도 그 회사의 비밀이나 고급기술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호형 기자

고침

3월18일자 8면 ‘신재경 교토 소재이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인터뷰 기사 내용 중 신 교수는 ‘재일 1세(在日一世)’의 기록’ 저자가 아닌 점과 ‘가족 모두 일반 영주자’라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제주대신문사 ‘57기 수습기자’모집

“ 제주대신문사에서 완벽하고 소중한 당신을 제57기 수습기자로 모집합니다 ”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구 미국, 일본, 중국, 광주, 백두산 등 취재)

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기회 제공

전자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매킨토시기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까지)

매킨토시를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아래캠퍼스, 사라캠퍼스 09학번 학생

장 소: 본관 동쪽 직업능력개발원 제단 3층에 위치

인문출판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의: 제주대신문사(754-2279; 010-6776-8277)

